

제 4회 『본질적인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크리스토퍼 J.코인 · 피터 J.벵키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5명
2021년 5월 23일 경남 창원시
울타 스테디카페 석전동

5 시장 과정

시장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마치 그들이 자원들의 배분과 분배를 결정하는 실체들을 선택하고 있는 것처럼 시장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the market)"은 일정 산업들의 쇠퇴, 일자리 상실, 혹은 소득 분배의 불평등, 기타 등등에 책임이 있다고, 우리는 종종 듣는다. 이러한 구성은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교환 관계에 참여하는 선택들을 시장들이 반영한다는 현실을 무시한다. 시장은 장소나 사물이 아니고 목적도 선택에 종사할 능력도 없다. 대신, 시장 결과들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기로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수많은 사람의 목적들, 계획들, 그리고 선택들을 반영한다. 이 점을 고려하면, 시장들에 관해 생각하는 더 정확한 방식은, 각각이 자기 자신의 독특한 목표들을 달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 중첩되고, 끊임없이 바뀌며, 자발적인 상호 작용의 배열로서 생각하는 것이다. 개인들 사이 이 상호 작용들은 자원 배분들과 분배들의 패턴이 발생하는 데 이바지한다.

원하는 것을 얻어 시간을 번다.
그 번 시간으로 또 다른 일을 하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성장이 된다.

오스트리아학파 전통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경제학자들이 배타적으로 정태 균형에 있는 사물의 상태들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대신 시장 과정의 작동을 떠받치는 원리들을 해설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요 원리들은 다음과 같다.

1. 시장들은 경제 계산을 허용하는 가격들이 발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들의 특정 집합의 존재에 달려 있다.
2. 경제 계산은 가치가 부가되는 소비재를 생산하기 위해 더 넓은 자본 구조에서 시간을 통해 자본의 조정에 대해 안내자로서 이바지한다.
3. 시장들은 순전한 무지에 직면하여 기업가적 발견에 따라 움직인다.
4. 기업가적 발견의 이런 과정은 계속 진행 중인, 끝이 열려 있는(open-ended) 체제에서 발생한다.

1번에서의 제도는 사유재산권을 얘기한다.

2번은 돈을 들여 미래라는 가치를 사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시장 교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정 제도들이 존재해야 한다. 제도들은 인간 상호 작용들을 지배하는 공식적 및 비공식적 "게임 규칙들"이다. 시장들의 작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제도는 자원들이 소유되고 사용되는 방법을 묘사하는 소유권 체제이다. 이 재산권들은 비공식적 -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지에 관해 공유된 규범들 - 이거나 공식적 - 소유지의 구획들에 대한 성문화된 법적 소유권들 - 일 수 있다. 재산권들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기 위해 사람은 자기의 신체와 자기가 사용하고 교환하기를 원하는 품목들에 대해서 지배와 통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산권들의 존재는 시장들이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광범위한 편익을 낳는다. 첫째, 재산권들은 경제 행위자들이 경제 계산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데, 이것은 제3장에서 논의되었다. 경제 계산은 선택자들이 희소한 자원들의 대안적인 용도들에 관해 기대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는 점을 상기하라.

재산이 있고 그로 인해 경제 계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사유 재산권 체제 안에서, 시장 과정은 순전한 무지에 직면한 기업가적 발견의 과정이다. 기업가 정신은 잠재적 이윤 기회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수반한다. 그러나 이 이윤 기회들은 미리 정해져 있고 알려진 것이 아니다. 이 점을 포착하기 위해서, 이즈리얼 커즈너는 무지와 순전한 무지 사이의 차이점을 강조한다. 무지(ignorance)는 알려진 지식 결여(knowledge lack of knowledge)를 나타낸다. -중략- 무지는 선택 대상인데,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무지를 제거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다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얻는 데 자원들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략- 대조적으로, "순전한 무지(sheer ignorance)"는 세계의 알려지지 않은 측면들을 나타낸다. 이 유형의 무지는 선택의 결과도 아니고 추가적인 정보를 얻는 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함으로써 제거될 수도 없다.

무지란 잘 몰랐던 것을 배워서 채워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순전한 무지란 세상에 없던, 상상도 못했던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